

碩士學位論文

高等學校 國史教科書의 人物分析

- 六次教育課程 改訂版 教科書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權 仁 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洪 完 鎭

2000年 2月

高等學校 國史教科書의 人物分析

- 六次教育課程 改訂版 教科書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權 仁 赫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洪完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高等學校 國史教科書의 人物分析
-六次 教育課程 改訂版을 中心으로-

洪完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指導教授 權仁赫

최근의 역사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발전시켜 역사 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문제 해결력과 역사적 사고력 등 역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역사 교육의 인물 학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이다. 이에 따라 본 논고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사교과서의 인물을 시대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개항 이후부터 현대 이전까지에 선정되어있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서술된 인물을 토대로 범주별 분류를 통해서 표를 작성하여 내용 분석을 하였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인물학습이 역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등학교 국사교육의 목표와 관련지어 검토하고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人物選定의 기준을 종합하여,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물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近代史 부분에 등장하는 127명의 인물들을 각 인물의 성격 활동 상황에 따라 교과서의 서술 내용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첨가되어야 할 인물과 내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결 부분에서 국사 교육의 인물학습에 대한 목표를 교과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순한 암기위주의 인물 나열이나 업적소개에 그치지 말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인물 자체에 대한 인간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상세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교과서의 인물 수록은 주로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지배층의 생활상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못하다. 역사의 주체세력이 민중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수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부분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독립 활동을 한 인물과 함께 친일적인 인물도 같이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영역별로 인물을 분류해 볼 때 예술가, 종교가, 여류인사에 대한 인물 수록이 적은 편이다. 구체적인 활동 상황과 더불어 세분화된 인물을 정선하여 수록해야 한다.

다섯째, 인물학습은 역사교육의 활용면에서 역사의 객관적 이해와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술체제가 傳記의인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가치관 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

I. 序論	1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1
2. 研究方法과 範圍	3
1) 研究方法	3
2) 研究範圍	4
3) 研究의 意義	4
II. 理論的 背景	6
1. 人物學習과 歷史教育	6
1) 人物學習의 概念	6
2) 人物學習의 意義와 重要性	7
3) 人物의 選定基準	10
2. 歷史意識과 歷史教育	13
1) 歷史意識의 概念	13
2) 歷史意識의 構造	15
3) 歷史意識의 發達段階에 따른 人物學習	16
III. 高等學校 教育課程과 教科書上的 人物分析	17
1. 高等學校 國史教育課程	17
1) 教育課程의 概要	17

2) 國史教育의 目標	18
2. 國史 教科書의 人物分析	20
1) 分析基準	20
2) 時代別, 領域別 人物의 統計	22
3) 人物의 頻度統計	24
4) 脚注·表·插畫에 대한 人物調査	25
5) 開港以後 部分에 對한 國史 教科書의 人物敍述 分析	27
IV. 教科書 人物敍述에 對한 問題點	40
1. 教育目標와 人物選定	40
2. 教科書에 收錄된 人物의 取扱 內容	43
3. 人物 指導上의 有意點	44
V. 要約 및 提言	45
1. 要約	45
1) 國史 教科書에 나타난 人物分析	45
2. 提言	46
參考文獻	47
<ABSTRACT>	50

< 表 目 次 >

表 1. 時代別, 領域別 人物의 統計22

表 2. 人物의 頻度統計24

表 3. 時代別, 內容別 挿書統計26

表 4. 政治家·軍人의 敘述內容27

表 5. 義兵·民族運動家의 敘述內容29

表 6. 學者·文人의 敘述內容35

表 7. 宗教家의 敘述內容37

表 8. 女流人士의 敘述內容39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和 目的

歷史란 인류가 남겨 놓은 정신적, 물질적 문화유산을 因果關係에 의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그 모두가 인간의 주체적 노력의 集積이요 그 결과적 所産이다. 모든 사회와 문화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교육의 소재로 하는 역사교육은 그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맹목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순한 해설이나 암기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認識하고 그 인식 基盤 위에서 역사적 능력과 태도, 역사의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길러 역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인간상을 기르는데 있다.¹⁾

인물을 통한 역사학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간탐구와 역사규명'이란 양면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²⁾

말하자면 역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역사이며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인간을 疏外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역사는 인간활동에 의하여 창조되고 인간은 역사를 형성 발전시켜온 주체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지도는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물교재를 통한 역사학습은 학생들의 偏狹된 人物觀이나 이미지를 바로잡고, 인물의 참된 인간상을 학생들에게 부각시켜 올바른 價値觀을 확립하며,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친근감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키워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³⁾

1) 송춘영(1984), "최근 한국의 역사교육이론 연구의 분석적 고찰", 역사교육 제29집, 역사교육연구회, p.36.

2) 이원순 외(1975), 「역사과교육」, 한국능력개발사, p.131.

그러한 만큼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문제는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취급되는 인물에 대한 문제들, 즉 인물의 선정, 서술내용과 지도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고등학교 국사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인물을 選定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단순한 위인전기가 아닌 만큼, 너무 많은 양의 인물을 수록해도 안되고, 서술 체계가 인물 위주로만 기술되어도 안되며, 고등학교 교육수준에 합당한 인물을 精選, 記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지도는 불가분한 것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역사학습 가운데 인물이 등장하면 학습이 구체적으로 되고 그 시대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다. 인물학습은 추상적인 역사를 구체화하여 학습을 생생하게 하여주며,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친근감을 주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물관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교육적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 관심 없는 역사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인간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과 같이 역사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킬 수 없는 것이며, 인물지도가 단순한 인물의 나열이나 단편적인 해설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종래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 시기별, 영역별로 분석한 자료들도 많이 나왔다. 본 연구는 이 점에 더욱 유의하여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어떤 인물이 선정 수록되어 있는가?’, ‘인물의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물선정이 타당한가?’, ‘첨가되어야 할 인물은 없는가?’, ‘공정성을 상실한 인물이나 내용은 없는가?’에 대하여 고찰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과서의 인물 선정과 아울러 효과적인 인물학습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3) 송춘영·이창욱(1977),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제22집, 역사교육연구회, p.2.

2. 研究方法과 範圍

1) 研究方法

본 연구는 文獻研究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에선 인물지도에 관한 先行研究⁴⁾와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사 교과서에 어떤 인물이(인물의 선정),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며(인물의 서술 내용), 어떻게 지도되어야 할 것인가(인물의 지도방안)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인물학습의 개념, 의의와 중요성, 인물의 선정기준, 역사의식의 개념과 구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둘째, 분석적 방법으로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을 수와 빈도, 서술내용, 각주·표·삽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별, 시대별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셋째, 비



4) 필자는 최근에 발표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여 보았다.

강지연(1994), “역사교육에서의 인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대석(1990), “사회과 역사분야의 인물학습 지도방안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권향숙(1990),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숙(1993), “중학교 국사과 인물의 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홍일(1989), “중·고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영옥(1992),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근대사 부분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용(1993), “현행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에 관한 실태분석-인물학습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배(1993), “중학교 국사과의 인물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윤환(1991), “고등학교 새 국사 교과서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표신(1989),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인물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미경(1989), “중학교 인물학습에 대한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허경현(1996),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연구방법으로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을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국사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인물 구분의 기준 설정은 어려운 문제였으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①왕 및 왕족 ② 정치가 및 군인 ③ 의병 및 독립지사 ④ 학자 및 문인 ⑤ 예술가 ⑥ 종교가 ⑦ 여류 ⑧ 외국인 ⑨ 기타의 9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9대 범주는 어디까지나 개괄적인 것으로서 결코 치밀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다.

2) 研究範圍

한편 본 연구를 遂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限定되었다. 둘째, 인물의 분석은 回數, 敘述內容, 脚注·表·挿畵에서의 인물취급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구체적인 제한점은 별도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셋째,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의 발달수준만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선행연구에 의존하였다. 본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가능한 외국의 여러 교과서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研究의 意義

역사교육은 역사를 교육의 소재로 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국민교육의 일환으로⁵⁾ 인간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완성을 목표로 하는 역사교육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분석력을 기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여 현실적 역사발전

5) 이원순 외(1977), 「역사교육」, 능력개발사, p.281.

의 주체자임을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발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아발전의 역사상을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상의 인물학습 역시 '인간탐구'와 '역사탐구'의 양면성을 충족시키는 역사교육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교육이 인간의 완성을 지향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인간상이 있을 것이며, 이 같은 인간상을 역사상의 인물을 통하여 그 인간상을 학습자에게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부각된 인간상에서 학습자 자신의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⁶⁾

특히 인물학습의 의의와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학습은 역사적 사고력, 비판력을 기르고 '인간탐구'와 '역사탐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물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물 학습은 학습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⁷⁾

따라서 인물의 敎受·學習은 단순히 인물의 업적 해설이나 인명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되며 인물의 활동상을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인물의 활동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물과 인물과의 관련, 인물과 집단과의 관련, 나아가 인물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聯關시켜 인물의 인간상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송춘영·이창욱(1977), 전게서, p.26.

7) 송춘영·이창욱(1977), 전게서, p.6.

II. 理論的 背景

1. 人物學習과 歷史教育

1) 人物學習의 概念

인물 학습이란 역사성이 담긴 인물을 말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역사적 배경속에 있는 인간을 아는 것이 역사속의 인물학습이다. 史書에 나오는 列傳式的 인물 서술이 아니라, 인간성과 역사성을 결부시킨 인물의 학습은 여러 가지 풍부한 자료의 제공으로서 가능하다.⁸⁾

인간은 역사적 존재요 역사의 주연 배우이므로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역사를 알 수 없으며 역사학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이해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⁹⁾ 역사교육에서 인물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므로 人間不在의 역사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역사 속에 발견되는 인물이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서술, 지도되어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 인물이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역사상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 학습의 매개물¹⁰⁾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습은 人物史學習과 人物學習이라는 두가지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물사학습이란 '과거라는 역사 세계에 묻혀있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 가운데 국가와 민족 사회에 특히 有功한 인물을 학습교재로 소생시켜 그 인물을 연구하고 그 인물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¹¹⁾ 이에 대해 인물학습은 한 역사적 인물의 생애나 인간상, 의지, 고뇌, 업적, 인물이 지닌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파악하

8) 강우철(1974), 「역사의 교육」, 교학사, p.335.

9) 박성수(1977), 「역사학개론」, 삼영사, p.202.

10) 이원순 외(1975), 「사회과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p.132.

11) 상계서, p.132.

여 학습자의 자기 인생관 내지 인간관의 바탕을 삼으려는 이른바 순수한 인간탐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¹²⁾

즉, 인물사학습이 인물을 통해 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인물학습은 전형적인 인물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인 것이다.

역사상의 인물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아무리 과거의 인물이었다고 해도, 현재의 우리의 시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업적과 그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인물은 물론 그 인물의 업적도 바르게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물을 통한 역사학습은 한 인물의 활동상과 업적, 인생관 등을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찾아 역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지식은 단순히 연대, 인물, 사건 등이 나열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기인식이요 자기 발견¹³⁾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물을 통한 역사학습은 단순한 업적의 암기나 사실의 해설에 그쳐서는 안되며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이 역사 전개의 주체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야한다.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도 이러한 인물학습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여 인간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이란 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2) 人物學習의 意義와 重要性

역사 교육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학습 지도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탐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강우철은 '누구에게나 좋아하고 숭배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자칫 하면 이성계와 원균을 흉악한 인물로 보는 것과 같이 역사 속에서 인간을 보지 못하고 사건만 보기 쉽다. 그러므로 역사 교육의 중요한 임무는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수많은 인물들을 앞에 놓고 내가 골라야 할 의복을 찾는 심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읽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¹⁴⁾ 라고 하면서 인간이 빠진 역사는 생

12) 송춘영(1982), "인물교재의 교육적 기능과 그 지도 방안", 대구사학, 제 20, 21집, p.296.

13) 차하순(1988),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p.63.

명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김한식은 '역사 학습은 인간의 作用이나 領位를 초점으로 전개해야한다.' 고 하면서 인물학습은 ① 인물을 창구로 해서 시대의 특색을 파악하고 시대의 배경 내지 당시의 사회를 부각시켜 인물이 활약한 조건을 더듬어보며 ② 인물의 성격 내지 행동을 통해 자기의 인간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바른 인생관 내지 인간관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¹⁵⁾

송춘영은 '역사는 인간 활동의 결정이며 인간은 역사를 형성 발전시켜 온 주체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 지도는 불가분한 것이다. 그러나 인물 지도가 단순한 인물의 나열이나 단편적인 해설에 그쳐서는 안되며, 학생이 지니고 있는 편협한 인물관이나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인물 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의점으로서 ①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보다 문화사적이며 주제 중심적인 각도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② 국가의 주체가 항상 그 시대의 국민 전체임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③ 지나친 단편적인 사실의 전달을 피하되 핵심적인 문제는 실례와 관련시켜 파악하도록 한다. ④ 근대사와 현대사에 치중하되 세계사 및 타교과와 관련 지도하도록 한다. 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학습 자료의 활용과 다양한 수업 형태의 개발에 힘쓰도록 한다.¹⁶⁾ 고 하였고, 또한 인물지도의 의의와 중요성을 ① 역사적 사고력, 비판력을 기르고 인간탐구와 역사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역사학습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친근감을 주며 주체적인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습자의 편협된 인물관과 이미지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격형성과 가치관 및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이해하였다.¹⁷⁾

이원순·이정인은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인간적 관심이 없이는 역사 교육

14) 강우철(1992), 「역사는 왜 배우는가」, 교학사, pp.12~14.

15) 김한식(1978), "국민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구사학, 제 15, 16합집, p.454.

16) 송춘영(1975), "고등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방안", 역사교육 제 18집, pp.2~14.

17) 송춘영·이창욱(1977), 전게서, p.6.

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한 시대를 대표할 특정 인물을 선정하여 그의 역사적 활동과 그 때의 역사적 배경을 연관적으로 탐구하여 가는 인물사 중심의 역사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흥미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인물사를 교재화하여 역사교육을 시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적 인물은 학습자들이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흥미와 욕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소재이기에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또 역사 이해와 탐구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역사 발전의 주체적 존재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구조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인문학적 이해가 증진되어 인간 부재의 사회 경제사적 구조적 이해라는 현행 역사교육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성적 이해와 역사적 파악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을 육성할 수 있고, 역사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인간학적 기초가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¹⁸⁾

최진한은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싫어하는데, 학생들에게 역사에 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고 역사 학습이 단순한 지식의 주입이나 암기를 강요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인물을 취급하여 학습의 질을 높이거나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¹⁹⁾고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인물학습은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의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며, ②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③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인격이나 인간관 내지 인생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인물학습에 있어서 각도나 비중을 두는 방법상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차지하는 인물학습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교과서의 인물도 보다 세심히 배려하여 서술되어야 하겠다.

18) 이원순·이정인(1985), 「역사교육 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pp.168~169.

19) 최진한(1977), "국민학교 국사교육에서의 인물지도에 대한 연구", 진주교대논문집 14, p.76.

3) 人物의 選定基準

인물의 선정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작게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고, 크게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역사교육에 있어서의 인물학습의 목적은 역사발전에 공헌한 특수 인물을 역사와의 관련에서 탐구시켜 현재라는 역사적 현실에 사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학습자들을 역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양육하는데 있다.²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물을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관심, 인물관, 역사관, 학문적 견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인물 선정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일반적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송춘영은 영역별 기준과 일반적 기준으로 나누어 인물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그 일반적 기준을 살펴보면,

- ① 도덕 윤리적인 편견에 의해서 특정한 인물만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標徵’이 될 수 있는 인물
- ② 각 ‘문화권의 특색을 표징’ 할 수 있고 사상적, 종교적 활동에 이바지한 인물
- ③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과제를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관련된 인물
- ④ 한 시대의 전환기에 대하여 그 시대의 전환과 개혁을 주도한 인물
- 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나 문화의 교류에 공헌한 인물
- ⑥ 향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²¹⁾

이원순, 이정인은

- ① 정치적 지도자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인물
- ②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선도적 활동을 한 인물
- ③ 문화 활동으로 민족의 슬기를 펴낸 인물

20) 이원순·이정인(1985), 「역사교육」, 제 30집, 역사교육연구회 pp. 168~169.

21) 송춘영(1976), “고등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방안”, 역사교육, 제 19집, 역사교육연구회, pp.82~83.

- ④ 사회, 경제, 기술등 각 분야 활동을 통하여 민족 생활을 향상시킨 인물
- ⑤ 시대의 전환기에 처하여 한 시대의 변혁을 이끌게 한 인물
- ⑥ 향토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인물로 나누었다.²²⁾

오주환, 이건형, 고석림은 인물의 선정에 있어서

- ① 시대의 발전에 공헌한 대표 인물(탁월한 경륜과 공적)
- ② 시대의 전환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창업과 혁명)
- ③ 민족 생명 유지와 주권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인물(異民族에 抗戰한 義兵 및 獨立鬪士)
- ④ 시대 정신의 대표자 및 민중의 선도자(사상과 종교)
- ⑤ 문화 창조에 크게 공헌한 인물(학문, 과학, 예술)등으로 나누고 있다.²³⁾

김한식은 인물 선정의 관점을

- ① 아동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진 인물
- ② 시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 나간 인물
- ③ 인물과 사회적 과제와의 관계가 명확하며, 전후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어 시대 추이의 해명에 중요한 인물 등 3가지로 나누었다.²⁴⁾

강우철은 '한 시대나 한 왕조의 역사 단원을 인물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²⁵⁾고 하여 인물 교재 단원의 구성을 示唆하였다.

송춘영, 이창옥은 '세계사적 시야에서 보편타당성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야 한다'에서 인물 선정시 고려할 점으로

- ① 무엇 때문에 인물을 취급하는가(목적성)
- ② 어떤 인물을 취급할 것인가(인물 선정)
- ③ 어느 정도 취급할 것인가(지도 내용)
- ④ 초, 중, 고와의 관련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학년의 연계성)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⁶⁾

22) 이원순·이정인(1981), 전계서.

23) 이건형 외(1978), "역사교과서에 실린 인물에 대한 분석적 평가와 그 비교연구", 대구사학, 제 14집.

24) 김한식(1978), "국민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사학, 제 15,16집, p.454.

25) 강우철(1974), 「역사의 교육」, 교학사, p.243.

26) 송춘영·이창옥(1977), 전계서, p.2.

천관우는 한국사상의 인물을

① 家産官僚制下的 인물

② 創業, 守成, 更張의 인물

③ 開花期와 日本強占期の 인물 등으로 나누어 시대변천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삼았다.²⁷⁾

이상과 같은 여러 관점을 바탕으로 인물의 선정 기준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관련된 인물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② 학문, 사상, 종교, 예술, 과학등 문화 창조에 공헌한 인물

③ 시대의 전환기에 처하여 한 시대의 변혁 과정을 크게 작용한 인물

④ 향토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관련된 인물

⑤ 역사적인 사명감과 강한 의지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인류역사 발전에 헌신한 인물

⑥ 한국사와 有關한 외국인으로 한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상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인물을 선정하되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할 인물은 지도 내용이나 시간배정의 양에 따라 제한이 있게 마련이므로 그 수는 정선될 수밖에 없으며 정선에 있어서는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 강력한 집념과 의지, 탁월한 개혁 창조의 정신으로 그 업적이 출중한 인물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물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종래의 통치자 내지 정치사 중심의 역사로부터 탈피한 진정한 국민의 역사가 되게끔 인물선정과 내용소개가 되어 있는가?

② 현대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인물선정이 고대에서 현대로 漸增加重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는가?

③ 사실의 객관적 지도란 전제 아래 역사진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인물과 함께 부정적으로 작용한 인물까지도 배려하고 있는가?

27) 천관우(1984),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p.79.

④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민족사의 내적 영역이 강조되어야 하는 바, 한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에 무게를 둔 경우는 없는가?

⑤ 여성인물의 소개에 있어서 등한시한 사항은 없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물의 선정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편견에 의해 특별한 인물이 선정되어서는 안되며 어느 특정의 영역이나 시대의 인물에 국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인물의 선정은 인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역사상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既成觀念이나 상식을 뒤엎을 만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과서의 인물 평가는 극히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인물 평가의 바탕 위에서 정치, 군사, 학문, 사상 및 종교, 예술 등 다방면에서 대표적 인물이 선정되어야 하겠다.

2. 歷史意識과 歷史教育

1) 歷史意識의 概念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역사적 사고와 판단 및 대응의 과정이 거듭되는 사이에 역사적 안목, 역사의식과 판단의 능력을 길러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미래에로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간을 양성함을 근본으로 한다.²⁸⁾

이런 경우, 흔히 사용하는 역사의식이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선행연구자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우철은 역사의식이 역사인식으로서의 유도장치의 역할 뿐 아니라 판단력, 사고력 향상의 기본능력이기도 하므로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지식의 토대 위에 역사

28) 김유해(1977), “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구조에 관한 일고찰”, 역사교육, 제21집, 역사교육회, pp1~2

의식을 높여주는 것이며 새 역사의식은 차원 높은 역사지식을 요청하는 還流過程을 반복한다고 설명하였다.²⁹⁾

김유해는 역사의식이란 시간적, 공간적인 현상적인 실재를 현재란 인간의식에 투사하여 追體驗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 체계로 보았다.³⁰⁾

이정인은 역사의식이란 나의 역사에 대한 지적 감각과 역사적 사고의 내면화의 심리이며 역사성의 자각이며 역사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¹⁾

차하순은 역사의식은 시간적 감각이며 역사성에 대한 예민한 의식, 즉 역사의 흐름 속에 서있는 자기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으로서의 일종의 자아의식이며 비판의식에 직결된다고 보았다.³²⁾

최재회는 역사적 의식은 조사학적 의식으로 역사적 세계에 대한 의식일 것이요, 역사적 세계에 주목하는 의식일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역사적 인식을 하기 이전에 그것의 기초에 자리잡고 있는 어떤 실천적 의식을 의식함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³³⁾

E. H. Carr는 역사의식은 자기 발견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사회나 국가에 참여시키는 사회의식으로서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자각적 사회의식이라고 보았다.³⁴⁾

콜링우드(김봉호역)는 역사의식이란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자기의 존재서에 대한 자아의식이며 省察的 行爲이다. 이 때의 성찰이란 역사적 현상에 대하여 역사가가 하는 사고과정을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하였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의식의 개념은 나름대로 차이가 있으나, 역사교육의 기초로서의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의 목표 내지 성과로서의 역사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자는 피교육자의 역사의식에 터전하여 역사교육이 구조화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역사교육을 통해 보다 상위적인 역사의식의 개발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9) 강우철(1978), 「역사교육과 역사의식」, 역사교육, 제24집, 역사교육회, p.149.

30) 김유해(1977), 상계서, pp.2~3.

31) 이원순·이정인(1985), 전계서, p.62.

32) 차하순(1988),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p.13.

33) 최재회(1974), 「역사철학」, 청림사, pp. 231~237.

34) E. H. Carr(김현모역)(1970), 「역사란 무엇인가」, 탐구당, p.70.

35) 콜링우드(김봉호역)(1976), 「서양사학사」, 탐구당, pp. 20~25.

그러므로 인물학습도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전개될 때 올바른 역사적 태도와 능력, 즉 역사적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 비판력 등이 길러질 것이며 보다 높은 단계의 역사의식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歷史意識의 構造

역사의식이란 학생들의 생활연령과 지적발달에 따라 형성되어 가며 그것은 連記的, 並列的으로 변천한다.

이원순은 역사의식을 역사적 시간에 대한 의식, 역사적 관심의 의식, 역사적 사고의 계통을 의식하는 것 등으로 나누고 그 단계적 구조를 ① 古今相異에 대한 의식 ② 변천의 의식 ③ 역사적 인과관계의 의식 ④ 시대 구조의 의식 ⑤ 역사발전의 의식으로 구분하였다.³⁶⁾

김유해, 이정인도 대체로 위의 견해와 같은 입장에서 역사의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역사의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³⁷⁾

- ① 古今相異意識 - 고금이 서로 다르고 옛과 지금을 비교하여 그 상이되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變遷發達意識 - 사회의 모든 사실과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옛날부터 오늘에까지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因果關係意識 - 역사적 사실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알고 그 관련성과 변화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時代構造意識 - 역사의 발전을 시대별 및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 ⑤ 歷史發展意識 - 역사를 발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한 시대에서 다음시대로 계속적인 발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역사의식은 이와 같이 그 단계적 구조를 형성하여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점차 성숙되어 가는 것이므로 이러한 역사의식의 구조를 잘 파악하여 그 발달단계에 맞도록 역사교육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인물학습에도 적용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36) 이원순 외(1975), 「역사과교육」, 한국능력개발사, p.58.

37) 신동렬(1983), “중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의 조사와 그 지도방안”, 역사교육론집, 제5집, pp 4-5.

3) 歷史意識의 發達段階에 따른 人物學習

교과서의 인물 선정이나 서술 내용 등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취급되어야 하는데, 그 중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는 역사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는 역사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역사교육은 지식을 기억시키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인물학습도 이러한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하며, 국사교과서에서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수록하여 지도할 때, 역사적 사실의 사실적 지식을 초월하여 더욱 깊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보다 높은 역사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있다.³⁸⁾

- ①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고등학생 단계에 들어서는 학생들은自我와 사회관계, 자기와 민족, 국가와의 관계나 사회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 민감해지는 등 사회 의식이 확대, 심화된다. 그러면서 자기나름대로의 꿈을 사회와 역사에 그려보게 된다.
- ②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事象間의 상호 연관관계를 의식하게 되어 역사의 종적 이해뿐만 아니라 횡적인 시야까지 확대되어 민족 전체의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 ③ 시대의식이 자라 時代史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역사의 외면적 양상과 내재적 의의를 가려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 ④ 역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점차 발전해 왔음을 깨닫게 되고 역사의 발전에는 개인적 노력도 문제되나 민중들의 삶의 투쟁, 민족으로서의 집단적 노력이나 국가적 활동의 선악이 뒷받침되어 이룩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역사탐구의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역사의식은 시대구조 및 개념의 추상화와 역사의 변천 발달을 의식하여 역사발전의 구조화 및 범칙성과 역사비판이 가능하며 복잡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역사교육은 문화사, 구조사(정치사, 사상사)적인

38) 이원순·이정인(1981), 전거서, pp.6~7.

접근과 개념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역사의 해석을 보다 인간중심으로 해야하며 인물학습을 통해 역사적 사실 뒤에 숨은 인간심리를 밝힐 수 있으며, 역사발전의 주체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구조적, 발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高等學校 教育課程과 教科書上的의 人物分析

1. 高等學校 國史教育課程

1) 教育課程의 概要

고등학교 역사교육에는 중학교에서의 시대성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사, 구조사(정치사, 사상사)적인 접근과 개념 중심의 접근을 통하여 역사적 인과관계의 이해와 함께 비판의식도 길러주고자 하였다. 즉, 정치사상, 경제구조, 사회구조, 종교사상, 문학사상, 예술속의 사상 등을 시대별로 抽出하고 각 시대의 개념비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단면을 구조적으로 정립하고 그 역사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³⁹⁾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역사를 문화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대사건을 중심으로 편찬한 중학교 교과서에 대비시키는 말이다. 문화사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사상, 미술 등 인간이 남긴 큰 업적을 중심으로 엮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어느 것이 되어도 무방하다. 정치사는 정치변동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나 문화사는 인간의 업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경우 역사의 해석을 보다 인간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상사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39) 교육부(1990), 「고등학교 국사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21.

뒤에 숨은 인간심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 시대의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민족의 이상을 두었는가를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도 인물을 통한 역사이해, 즉 인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 사상사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인물학습도 중학교에서 배운 인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맞도록 전개되어야 하며 인물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國史教育의 目標

‘국사’ 과목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실과 그 속에 內在된 역사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오늘의 우리 생활 모습과 사회 현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사 교육은 우리 민족의 활동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오늘의 우리 현실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사’ 과목은, 우리 민족의 본질과 그 문화,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과 각 시대의 사회 현상 등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 주는 구실을 한다.

또, 국사는 민족 고유 정신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과목으로서, 문화 민족의 전통을 이룩하게 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 준다.

특히, 고등 학교에서의 국사 교육은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 생활사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문화사와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각 영역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에서 보충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된 국사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1.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별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2.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성을 세계사의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

3. 역사 자료를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도록 한다.
4. 향토사가 민족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향토 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가지게 한다.
5.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족사의 특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 역사 창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사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기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지도는 이와 같은 과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개인과 국가에 대한 가치 선택에 있어서 민족주체성의 확립은 자기 전통의 기반위에서 자아의 재인식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으나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며 역사교육은 인간적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⁴⁰⁾고 볼 때 한민족 역사의 맥락속에서 국난극복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지도하면 역사발전의 참모습을 내면적으로 인식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사교육은 성격이 국사상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족사의 조류를 내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학습 지도면에서도 지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일관된 지도 방법에서 탈피하여 역사의 중심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국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역사학습 능력 신장이나 가치의 내면화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역사의 주인공 인물을 중심으

40) 이원순(1981), 「역사교육론」, 삼영사, p.75.

로 그들이 실현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종전의 학습 과정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사실의 상황을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가치적인 요구를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國史 教科書의 人物分析

1) 分析基準

교과서는 교수-학습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여하는 교과서의 편찬 내용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교과서는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 기본 참고 도서 및 도구로서의 기능, 자료의 안내와 정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 제공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 교과서는 교육 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教科書觀이 바뀌고 또한 그 시대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그 내용과 서술 방향도 조금씩 달라져 왔다. 따라서 교과서에 어떤 인물이 수록되어 있고, 그 인물에 관한 내용 서술은 어떠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인물 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인물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일정한 분석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의 영역별 분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9대 영역으로 분류했다.⁴¹⁾

- ① 왕 및 왕족-왕, 황제, 집권 왕족.
- ② 정치가, 군인- 왕 및 왕족이외의 집권자, 대통령, 관료 혹은 행정가, 외교관, 혁명가, 장군, 군공이 뛰어난 지휘관이나 사병, 구테타 주도자 등.
- ③ 의병, 민족운동가, 독립지사- 우리나라 역사상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헌신

41) 이건형 외(1978), 전개서, P.5.

한 인물.

- ④ 학자, 문인- 학문에 통달하거나 그 연구와 교육에 헌신한 인물, 학자, 교육자, 문인저술가, 시인, 역사가, 발명가, 유생, 언론인 등.
- ⑤ 종교 및 사상가- 승려, 성직자, 교주, 도사, 특기할 신자 등.
- ⑥ 예술가- 음악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서도가, 연예인 등.
- ⑦ 여성- 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여왕, 문인, 예술가 등
- ⑧ 외국인- 우리 나라에서 활동한 일이 있거나 우리 나라 역사발전에 영향을 미친 외국인 들.
- ⑨ 기타- 상기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인물, 역사적 역할이 微微한 인물, 전설적인 인물, 단순왕족, 사업가(상인), 胥吏, 농민, 농민반란 지도자, 노동자, 노예 등.

둘째, 시대별 인물의 분류기준은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회로 구분하였는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시대 구분법에 준하여,

고대는 상권의 [I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III] 고대 사회의 발전

고려는 [IV] 중세 사회의 발전

조선은 [V] 근세 사회의 발달, 하권의 [I] 근대 사회의 태동

근대는 [II] 근대 사회의 전개 [III] 민족의 독립 운동

현대는 [IV] 현대 사회의 발전까지로 하였다.

이상의 분류에서 특히 어떤 인물이 몇 개의 영역에 중복하여 소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가졌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먼저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우선으로 하되, 교과서에도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하위 영역의 속성을 버리며, 다른 책의 소개내용에 따라 그 주요업적을 기준으로 적합한 영역에 소속시키기로 했다.

셋째, 인물의 빈도 문제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15위까지의 순위를 밝혔고, 지시대명사로 지칭된 문장내의 인명은 빈도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네째, 각주·표·삽화에서의 인물은 본문에서의 인물과 별도로 통계를 내었으며 특히, 삽화의 경우에는 인물사진, 초상화, 동상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고 그밖에 인물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인물의 서술내용에 있어서는 교과사 본문의 내용을 대상⁴²⁾으로 하여, 이미 지적된 문제점은 그 개선여부를 살피고, 가능하면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국사교육과정의 지도방침과 관련시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2) 時代別, 領域別 人物의 統計

<표1>시대별 영역별 인물의 통계

영역별 시대별	왕 왕족	정치가 군인	의병 민족 운동가	학자 문인	예술가	종교가	여류 인사	외국인	기타	계
고대사회	25	13	0	17	4	13	4	8	0	84
고려사회	19	29	0	29	3	6	0	6	9	101
조선사회	19	20	19	100	21	7	4	8	6	204
근대사회	2	19	47	26	5	5	3	10	0	117
현대사회	0	8	1	0	0	0	0	0	0	9
계	65	89	67	172	33	31	11	32	15	515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총수는 515명이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할 인물의 적절한 수에 대해서는 개개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인물들의 총수가 과연 정선된 인물의 수인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단순한 나열보다는 그 인물이 차지하는 역사상의 위치등 본질적인 의미를 부각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먼저, 영역별 분포 인물 수를 살펴보면, 학자문인이 172명(33.4%)으로 가장 많고 정치가 및 군인이 89명(17.3%), 의병 및 민족운동가가 67명(13.0%), 왕 및 왕족이 65명(12.6%), 예술가가 33명(6.4%), 외국인이 32명(6.2%), 종교가가 31명

42)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하권 pp. 65~184. 까지로 한정하여 분류해 보았다.

(6.1%), 기타가 15명(2.9%), 여류인사가 11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왕, 왕족, 정치가, 군인 같은 정치적 인물이 154명으로 전체의 30%나 된다는 것은, 아직 왕조사 중심의 서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지배자 위주의 서술태도란 인상을 준다. 특히 현대사회의 인물로는 정치가가 8명, 민족운동가로 1명을 수록하여 영역별 균형에 너무 어긋나며, 앞으로는 정치적 인물의 수를 대폭 줄이고 문화의 각 방면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시대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사회가 204명(39.6%)으로 가장 많고, 근대사회가 117명(22.7%), 고려사회가 101명(19.6%), 고대사회가 84명(16.3%), 현대사회가 9명(1.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에서 근대로 올수록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점증가증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며, 현대 이후의 시기에는 9명의 인물이 등장할 뿐이어서 많은 보완을 요한다고 하겠고, 특히 대한민국시기의 인물선정에 대한 선택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겠다.

셋째, 여류의 활동이 경시된 느낌이 있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등 아주 알려진 인물들이 소개된 것은 남자의 경우 아주 생소한 인물들이 여기저기 산재한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인물 안배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류인사들의 활약상에 비하여 그 소개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자료에서 보면 일제시대의 여성활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재인식되기 때문이다. 여성활동에 대한 보다 긍정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人物의 頻度統計

<표2> 인물의 빈도 통계⁴³⁾

순위	1	2	3	4	5	6	7	8	9	인물수
고대 사회	진흥왕 궁예 (6)	단군 신문왕 (5)	위만 (4)	주몽, 소수림왕, 장수왕, 광개토왕, 법흥왕, 진성여왕, 최치원, 김생, 견훤 (3)						14
고려 사회	왕건 (17)	공민왕 (11)	성종 (10)	광종 (9)	의종 이자겸 의천 (7)	예종 (6)	정몽주 길재 (5)	현종 묘청 최우 최준경 최영 김부식 (4)	혜종 숙종 충렬왕 이제현 이규보 최승로 이색 최충 이인로 지눌 (3)	26
조선 사회	홍선대 원균 (18)	이성계 영조 (12)	광해군 정약용 (9)	정조 이황 (8)	세종 정도전 이순신 (6)	인조 이이 이익 (5)	숙종 김홍도 (4)	태종, 중종, 순조, 사도세자, 김종직, 조광조, 유성룡, 송시열, 곽재우, 조헌, 정세두, 박제가, 신윤복, 안견, 김대건 (3)		30
근대 사회	고종 (8)	박영효 (7)	김홍집 박은식 (6)	김옥균, 한용운 (5)	신채호 서재필 김구 (4)	박규수, 유길준, 이상설, 최남선, 장지연, 최익현, 김규식, 지청천, 전봉준 (3)				18
현대 사회	이승만 (8)	김일성 (5)	박정희 (4)							3

43) <표2>에서 단순히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왕명 수록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의미와 관계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음. 인물 밑에 () 표기는 내용별 빈도수임.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중 세 번 이상 언급된 인명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세 번 이상 기술된 인물의 총수는 91명으로 그 중 조선시대의 인물이 가장 많아, 현대사 부분에 대한 서술을 대폭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偏僻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영역별로는 정치적 인물이 51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여 지배자 중심의 체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의 인물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인명과 작품명만을 명시하거나 극히 간단한 소개에 그친 데 반하여 정치사적 인물들은 사건의 전후와 연관하여 비교적 많은 양에 걸쳐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적 인물보다 민족운동가들이 많이 등장하는 바, 이는 당시의 사회가 일제침략시대를 포함하고 있어 조국을 구하고자 애쓴 사람들을 대거 수록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수록된 횟수는 많다하더라도 반드시 등장시켜 강조해야 할 인물인가? 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도 발견된다. 고종 황제, 이승만 등은 여러차례 소개되고 있지만, 김원봉, 여운형 등에 대한 소개는 이름만 나열되다시피 했다. 독립투사로서의 활약상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정당하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4) 脚注 · 表 · 挿畫에 대한 人物調査

어떤 교과서의 편찬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가에 따라 교수-학습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습할 교재 내용의 구조화, 개념화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건, 인물, 작품, 연대, 역사지도, 삽화, 장소 등이다.⁴⁴⁾ 초상화, 사진, 삽화 등은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가장 직접적, 구체적 감명을 주며 관심과 흥미, 학습의욕을 일으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연표는 그 시대의 특색과 흐름, 상호간의 관련, 사상과 인물과의 관계 등을 時空적으로 고찰할 수 있고, 인물의 활동상을 연표로 작성하고 독서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 또한 각주의 활용은 본문에서 소략한 내용이나 본문과는 다

44) 송춘영 · 이창욱(1977), 전제서, p.18.

른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충하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삽화는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명을 주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켜서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인물과 관련된 주요 삽화의 목록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삽화일람표>

<표3>시대별, 내용별 삽화 통계

내용별 시대별	인물과 관련된 삽화 분류											삽화 총수	백분비 (%)
	공예	그림	고분	비(금 석문)	지도	저서	동상, 초상	석탑	글씨	조각	계		
고대	5	1	3	4	4	0	1	1	1	0	20	65	30.8
고려	0	1	0	1	1	0	4	0	5	0	12	28	42.9
조선	0	3	0	0	3	10	1	0	4	0	21	46	45.7
근대	0	9	0	2	1	9	10	1	0	0	32	69	46.4
현대	0	0	0	0	0	3	4	0	0	0	7	47	14.9
계	5	14	3	7	9	22	21	2	10	0	93	265	35.1

위의 표를 근거로 하여 삽화가 다른 역사적 사실이나, 특히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과 어떻게 관련되었으며, 개념화되었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총 265圖의 삽화 가운데 93도에서만 인물에 관련된 삽화이다. 이것은 삽화수목 총 도수의 약 3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물지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에 관련된 삽화의 절대적인 분량 자체는 아직도 매우 적은 편이며 인물학습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삽화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활용되었으면 한다

둘째, 시대별, 영역별로 전체적 균형과 적절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시대적으로 인물사진의 경우 근대에 편중되어 있다. 다만, 근대에 의병, 鎭衛隊,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조선어학회 회원 등 단체 사진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특정한 개인에 치중한 역사서술에서 탈피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영역별로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에 대한 자료는 1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인물의 소개에 있어 단순히 자료만 수록하고 소개가 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교과서 하단에 주로 서술하므로써 본문과 다른 내용을 첨가하거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5) 開港以後 部分에 對한 國史 教科書의 人物敍述 分析⁴⁵⁾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개항 이후 부분에서부터 관하여 서술된 인물의 총수는 127명이다. 여기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빈도수를 중심으로 인물의 전부를 게재하였다. 이 장에서 소개된 <표>들은 본 논문의 인물에 대한 영역별 분류를 참고하여 임의로 분류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영역별 인물에 대한 분석은 사건에 대한 교과서에 수록된 인명을 제시하고, 인물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첨가되어야 할 인물과 내용을 거론하였다.

(1) 정치가·군인

<표4> 정치가·군인의 서술 내용

소단원	수 록 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 가 되 어 야 할 내용, 인물
개화정책의 추진	김기수 김홍집	개항 후 조선 정부는 제1차 수신사 김기수와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상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알고, 개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중략)(하권 p.77)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박규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윤식	개화 사상의 선각자인 박규수의 지도를 받은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이 개항을 전후해 점차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여 개화파를 이루었다... (중략)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이라고 할 만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등은 민씨 정권과 결탁하여 청의 양무 운동을 본받아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는데, 이들을 온건 개화파 또는 사대당이라고 한다. (하권 p.81)	

45)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하권 pp. 67 ~184 까지의 부분을 정리하여 분류해 보았다.

소단원	수 록 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되어야 할 내용, 인물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유길준 김홍집 어윤중 홍영식	이에 대하여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 소장과 관료들은 청의 내정 간섭과 청에 의존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였고...(중략)(하권 p.81)	
동학농민군의 봉기	조병갑 전봉준	제 1기는 고부민란의 시기이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판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하권 p.85)	
국권·민권 운동의 전개	박정양	그 후, 독립 협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중략) 독립 협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하여 보수적 내각을 퇴진시키고,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을 수립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하권 p.92)	
항일 의병 운동의 시작	민영환 박승환	민영환 등은 외교권 상실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결로써 을사조약에 항거하였다...(중략)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의 자결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본군과 시가전을 전개하였던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었다.(하권 p.97)	을사조약의 내용 을사오적 이완용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그리고 갑신정변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반면, 실패 원인은 너무 간략히 서술되고 있다. 실패원인 중에는 개화당 요인들이 국민대중에 대해 거의 유리화 되었음과 일본이라는 외세를 끌어 들여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음을⁴⁶⁾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을사조약에 의해서 의병항전이 확대되는데 을사조약의 내용⁴⁷⁾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을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소위 ‘乙巳五賊’을 수록해

46) 신용하(1987), 「한국 근대 사회사상사 연구」, 일지사, p.252.

47) 을사조약의 내용은 첫째, 일본의무성이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 지휘한다. 둘째, 금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못한다. 셋째, 일본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둔다.

야 할 것이며, 이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서 위원장까지 역임했다. 독립관에서는 매주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 제목이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부의 무능함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게 되자, 이완용은 불만을 표시하고 협회에 자주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전라감사로 임명되어 서울을 떠나게 되고 독립협회를 탈퇴하였다. 즉 국권의 강탈 과정에서 이완용의 행동이 우리 나라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할 것이다.

(2) 의병·민족운동가

<표5> 의병·민족운동가의 서술 내용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할 내용과 인물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이항로 기정진 유인석 최익현	...(중략) 초기의 위정척사 운동은 이항로, 기정진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특히 이항로의 문인들인 유인석, 최익현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하권 p.78)	
동학농민군의 봉기	전봉준 김개남	제2기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중략)(하권 p.85)	손화중 시모노세 키조약
독립협회의 창립과 민중 계몽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독립 협회는 서재필을 비롯하여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 지도부를 형성하였고...(중략)(하권 p.90)	
항일의병 운동의 시작	유인석 이소용 허위	최초의 항일 의병은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자행된 을미사변과 친일 내각에 의하여 강행된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중 유인석, 이소용, 허위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하권 p.96)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할내용과 인물
의병 항전의 확대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나철 오기호 민중식 최익현 신돌석 이인영 허위 홍범도 이범윤 안중근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등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과 조약의 폐기를 황제에게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고...(중략) 나철, 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5적의 집을 불사르고 일진회를 습격하는 등 매국노를 처단하고자 하였다...(중략) 민중식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관직을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군과 맞섰다. 그리고 최익현은 의병을 이끌고 순창에 입성하여 관군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중략) 한편,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은 의병을 모아 영해에 입성하여 관군의 무기를 탈취한 후...(중략) 이인영과 허위가 지휘하는 1만여명의 의병 연합 부대는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근교 까지 진격하였으나...(중략) 그리고 홍범도와 이범윤이 지휘하는 간도와 연해주 일대의 의병 부대가 국내 진공 작전을 꾀하였으며, 의병으로 활약하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하권 pp.97~98)	13도 창의 대진소 남한대토벌 작전
애국 계몽 단체의 활동	안창호 양기탁 장지연	안창호, 양기탁 등을 지도부로 한新民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중략) 특히, 황성 신문은 주필 장지연이 을사조약에 분개하여 쓴 논설 '시일야 방성 대곡'으로 유명하다.(하권 p.101)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이회영 이상룡 이상설 이승희 이동휘	이 가운데 유명한 곳은 이회영, 이상룡 등이 설치한 남만주의 삼원보와 이상설, 이승희 등이 세운 밀산부의 한홍동,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이었다. 더욱이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수립됨으로써(1914)...(중략)(하권 p.153)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할 내용과 인물
3·1 운동의 태동	김규식	그리하여 상하이에서 조직된 독립 투사들의 모임인 신한 청년당은 김규식을 민족 대표로 파리에 파견하였다.(하권 p.144)	최남선 김마리아
임시정부의 활동	김구 이승만	임시 정부는 일본의 중국 침략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각지로 전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김구 등의 노력에 의해 조직이 정비, 유지되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끝까지 항전을 계속하였다...(중략)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데 노력하였다.(하권 p.149)	
애국지사들의 항일의거	김구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김지섭 조명하 김지섭	...(중략)(하권 p.81)그 중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과 김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국내에서의 의거로는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 종로 경찰서에 투탄한 김상옥, 그리고 총독부에 투탄한 김익상과 동양 철식 주식 회사에 투탄한 나석주 등의 활동이 유명하였다...(중략)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죽인 조명하, 일본에 건너가 일본 국왕을 죽이려 하였던 김지섭의 거사는 국제적으로 한국 독립 운동의 의기를 드높였다.(하권 p.154)	
봉오동·청산리 전투	홍범도 김좌진 최진동 안무	이 가운데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린 것은 홍범도가 이끈 대한 독립군이 거둔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이 이끈 북로 군정서군 등이 거둔 청산리 대첩이었다. 대한 독립군은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 독립군과 연합하여...(중략)(하권p.155)	
독립전쟁의 시련	서일 지청천 양세봉	...(중략) 그 중 4000여 명 규모의 주력 부대는 소·만 국경에 위치한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 곳에서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한 후,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여 소련 영토 내로 이동하였다.(하권 p.156)...(중략) 먼저 지청천이 인솔하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고...(중략) 한편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 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홍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하권 p.158)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할내용과 인물
대일 선전 포고와 한국 광복군의 활약	지청천 이범석	한국 광복군은 총사령관 지청천, 지대장 이범석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연합하여 국토 수복 작전의 임무를 맡은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특수 훈련을 실시하였고, 비행대의 편성을 꾀하였다.(하권 p.160)	
민족 유일당 등	이상재 김활란	신간회는 이상재 등 지식인 30여 명의 발기로 서울에서 발족되었으며...(중략) 근우회는 김활란 등이 중심이 되어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으로 조직되었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새생활 개선을 행동 강령으로 하였다.(하권 pp.164~165)	안재홍
청 소 년 운동	방정환 조철호	특히, 방정환과 조철호 등은 소년 운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애국심을 북돋워 주었다.(하권 pp.163~164)	
민족 교육	이상재	민족 교육 진흥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조선 교육회의 노력으로 이상재를 대표로 하는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결성되었다(1922).(하권 p.176)	

동학 농민 운동에서 전봉준에 대한 기술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교과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습격’, ‘점령’, ‘체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 고통받는 민중의 지도자라는 인상보다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장본인의 인상을 주고 있다. 전봉준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기술과 함께, 농민전쟁이 단순한 민란의 성격을 띤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하여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벌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과 청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음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확인한다는 것이 제1조에 들어 있었으나, 이것이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의 종주권을否認하기 위한 것이고, 청이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게 할양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써 일본은 만주에까지 침략의 야심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미의병은 군대해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박승환의 권총자살이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군인들로 하여금 현실을 되돌

아 보아 무기반납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없음을 깨우쳐 주고, 즉각 의병부대에 가담케 한 박승환의 유서를 참고 자료로 소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⁴⁸⁾

한편, 서울進攻作戰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十三道倡義 大陣所」를 수록해야 할 것이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허위를 군사장으로 하여 두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화력의 부족과 일본군의 중파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의병항쟁에 대해 일본군은 1909년 약 2개월간에 걸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하여 전라도 지방의 의병에 대해 대대적 탄압을 감행하였음을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 때 ‘覺伴的 方法’⁴⁹⁾이라는 新戰法을 채택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의병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

3·1 운동에서는 소수에 의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국민이 참가한 거족적인 시위운동이었기에, 인물을 선정함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왜 역사를 연구한 당대의 지식인이 시대 정신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말년에 가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민족 앞에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귀국하여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 출감된 후 대한애국부인회를 이끌며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김마리아도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김구와 함께 여운형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1917년 독일이 항복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상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지원을 받으려하였으나, 강대국의 이해 관계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여운형은 임시정부와 협력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민간외교를 전개하였다. 그의 일본에서의 연설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독립선언이었으며,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미·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주적인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민족지도자로 기술되어야 한다.

48) 박성수(1980),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p138에서 박승환의 유서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

49) 이것은 지역을 세분화하여 분담지역내에 있는 의병을 전후좌우로 반복 공격하고, 또 군대를 동원할 때에도 신속히 출동하여 의병으로 하여금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의병진의 근거지를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었다.

1930년 상해에서 이시영, 김구, 안창호, 조소앙 등에 의해 조직된 한국독립당도 수록해야 할 것이다. 趙素昂의 三均主義가 건국강령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臨政의 공식 정책과 노선화 되었음은 특기할 역사적 사실이다.⁵⁰⁾

삼균주의는 1931년 4월에 선포한 것으로 「普通選舉를 실시하여 政權을 均히 하고 國有制度를 채용하여 利權을 均히 하고 公費教育으로서 學權을 均히하며 …(중략)」라고 선언 하므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천명함과 아울러 민족, 국가, 국민의 평등을 밝힌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이었다.⁵¹⁾ 그리고 조소앙 외무부장 등의 노력으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어 독립 보장등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었다.

부장항쟁 중에서, 김원봉의 의열단과 김구의 애국단에 대해서 교과서는 나열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김원봉은, 1919년 11월 9일 길림성에서 동지 13인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고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시도하여 일본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1929년 말 마르크스·레닌파와 합동하여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을 조직할 때부터 의열단은 좌경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⁵²⁾ 1933년 10월 조선민족전선 연맹은 김원봉을 총 대장으로 하는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⁵³⁾ 1942년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재현되었으며 김원봉은 제1지대장 겸 부사령(총사령 이청천)으로 취임해 김구와 손잡고 국권회복에 힘쓴다.

신간회의 주역으로 안재홍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안재홍이 1927년 상주 지회의 설립 기념 강연회에서 행한 연설내용이 이후 많은 지회의 정책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⁵⁴⁾ 뿐

50) 이현희(198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538.

51) 조동걸(1984),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p.243.

52) 염인호(1993), 「김원봉 연구」, 창작과 비평사, PP.120~144

53) 강재언(1992), 「한국 근대사」, 한울, p.232.

54) 이균영(1991), “신간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제 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p.348.에 한 판원자료는 연설 내용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① 1919년 독립운동은 그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준 교훈은 큰 것이었다. 장래 전 민족의 단결로 실제 행동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 ②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는 결국 조선혼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조선인에 대해서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③ 산업교통의 여러 정책은 다 일본인 본위로서 조선인에게는 조금도 이익된 점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들을 사멸로 이끄는 것이다.

만아니라 1935년경부터 사회주의 이론의 장점을 도입한 신민족주의가 안재홍 등에 의해서 제창되었는데, 그것은 신간회라는 공동의 광장에서 태동한 민족주의의 수정이론인 것이다.

(3) 학자 · 문인

<표6> 학자 · 문인의 서술 내용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서술내용	첨가되어야 할 내용과인물
근대시설의 수용	지석영	이에 앞서, 지석영은 종두법을 연구, 보급시켜 국민 보건에 공헌하였다.(하권 p.118)	
국학연구의 진전	신채호 박은식 최남선 유길준 지석영 주시경	먼저, 국사 분야에서는 신채호, 박은식 등이 근대 계몽 사학을 성립시켰다...(중략) 한편, 최남선은 박은식과 함께 조선 광문회를 만들어 민족 고전을 정리, 간행하였다...(중략)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새로운 국한문체의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으며...(중략) 특히, 지석영, 주시경 등은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새로운 이해 체계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하권 pp.120~121)	
문학의 새 경향	이인직 이해조 최남선	당시, 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인직의 혈의누, 이해조의 자유종 등이 있다. 또,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발표하여 근대시의 형식을 새로이 개척하였다.(하권 p.121)	
한글 보급 운동	이윤재 최현배	3·1 운동 이후 이윤재, 최현배 등은 국문 연구소의 전통을 이은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여 국어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하권 p.173)	이극로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서술내용	첨가되어야할 내용과인물
한국사의 연구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병도 손진태	먼저, 박은식은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통사를 저술하여 근대 이후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밝혔으며,...(중략) 그리고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하여...(중략) 그 밖에,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 등의 저술을 통하여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였고, 문일평, 안재홍 등도 민족주의 역사학을 계승, 발전시켰다. 한편, 청구학회 중심으로 한 일본 어용 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대항하여, 이병도, 손진태 등은 진단 학회를 조직하고 진단 학보를 발간하면서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하권 p.175)	
문학 활동	이광수 최남선 한용운 신채호 김소월 염상섭	최남선은 새로운 시 형태를 꾀하여 근대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중략) 이광수는 그의 소설 무정이 계몽기의 신문학을 총결산할 만한 작품이라 평가될 정도...(중략) 그리고 한용운, 신채호, 김소월, 염상섭 등은 우리 문학을 전통적인 문학의 바탕 위에서 근대 문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중략)	카프 문학
문학 활동	심훈 이육사 윤동주 현상윤 김동인 윤백남	심훈, 이육사 등도 민족 의식을 담은 작품을 발표하여 민족 정기를 일깨웠다...(중략) 김동인이 주동이 된 창조와 염상섭이 주관한 백조였다...(중략) 현상윤은 실낙원 등의 일제에 저항하는 작품을 남겼다. 또, 역사 의식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김동인, 윤백남 등은 많은 역사 소설을 발표하였다.	카프문학

최남선, 이광수 등은 일제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분자로 비난을 받지만, 최남선은 3·1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 친일파로 분류는 되었지만 국사를 통한 민족적 주제

의식의 확립을 목표로 많은 저서를 내어 사학계의 원로가 되었고, 이광수는 '독립신문'의 주필 겸 임정 사료편찬위원회 주임으로 활동하는 등, 일생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교훈을 주는 학자들임을 감안할 때, 신체시나 현대문학에 대한 활동 서술은 輕重이 倒錯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글 진흥 운동에서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국어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이고 '조선어학회 사건'의 주모자인 이극로를 수록해야 한다. 조선어학회에 대해서 교과서는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반해, 이 학회의 중추자였던 그를 '월북자'라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당하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진단학회의 활동은 너무 간략히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인물사진을 수록함에 있어서도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역사학자들의 사진이 수록되어야 하며 국사학자들의 작품을 많이 소개하여 민족의식 양양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본받게 해야 할 것이다.

문학활동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카프(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문학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1920~1930년대의 문학 예술 활동은 일제하에서 민족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카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리의 문학 진통을 정당하게 계승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⁵⁵⁾

(4) 종교가

<표7> 종교가의 서술 내용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서술내용	첨가되어야할 내용과인물
종교운동의 새 국면	손병희 한용운 나철 오기호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하고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족 종교로 발전시켰다...(중략) 이에 한용운 등은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세워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를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나철, 오기호 등은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하권 p.124)	김교헌 윤세복

55) 역사문제연구소(1988),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의 재평가", 「역사 비평」 제간2호.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서술내용	첨가되어야할 내용과인물
3·1 독립 선언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하권 p.144)	
종교활동	한용운 박중빈	한용운 등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통합하려는 총독부의 정책에 과감히 맞서서 민족 종교의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한편, 박중빈은 원불교를 창시하고, 개간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 정신을 키워갔으며, 남녀 평등, 허례허식의 폐지 등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하권 p.180)	

대종교에서는 제1대 교주인 나철과 함께 제2대 교주 김교헌, 제3대 교주 윤세복을 수록해야 할 것이다. 대종교는 1909년 나철에 의하여 구국운동의 방략으로서 창시된 단군을 신앙하는 종교이다. 시기적으로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지역적으로는 국내외, 특히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사상적 지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주요 독립운동가 대다수가 대종교 신자였고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들 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좌진을 비롯하여 신채호, 김두봉, 박은식 등이 모두 신자이며 그 이념을 체계화 한 인물이 김교헌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 윤세복이라고 하겠다.

불교 부분에서는 佛敎維新論의 저자로 한용운을 소개하고 있으나, 미진한 점이 엿보인다. 한용운에 대한 서술을 불교뿐만 아니라 3·1독립선언서의 낭독, 문학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수록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기독교계 인물들의 상당한 부분이 항일 민족 운동을 벌였음에도 이승훈만이 종교계의 대표로 소개된 것 같다. 1935년 일제는 각지에 神社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거부한 사람은 투옥하고 그 교회는 폐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준 장로, 김선두 목사,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리고 평생을 교육사업에 투신하면서 ‘聖書朝鮮’을 발간한 김교신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기독교 교인이기는 하되, 제도화된 기독교, 의식화된 기독교를 철저히 배격하고, 기독교의 참된 정신과 신앙을 성서 속에서 직접 찾으려 했던 인물이다.

(5) 여류인사

<표8> 여류인사의 서술 내용

소단원	수록된 인물	교과서 서술 내용	첨가되어야 할 내용과 인물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명성왕후	이 때 명성왕후는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의 침략세력을 제거하려 하였고, 이에 일본 침략자들은 명성왕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1895).(하권 p.88)	
3·1 독립선언	유관순	...(중략)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하권 p.145)	
민족유일당 운동	김활란	근우회는 김활란 등이 중심이되어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으로 조직되었고 여성 노동자의 이익 옹호와 신생활 개선을 행동 강령으로 하였다. (하권 p. 165)	김마리아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은 1907년 國債補償運動에서 여성이 조직적이고 단체적으로 참여, 국채보상의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1919년 3·1운동에서의 항일 구국 투쟁으로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투쟁에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항일운동사상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밀결사로는 가장 컸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회장을 역임하여 독립운동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김마리아는 반드시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⁵⁶⁾

민족유일당 운동에 따라 좌파, 우파로 분열된 여성운동계도 연합운동을 추진한 결과 1927년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근우회의 창립 이념은 봉건적인 인습과 일제 치하의 질곡이라는 이중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전체 여성이 굳게 단결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우회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좌우 양파는 이해를 달리하여 기독교계 여성들이 1928년에 이미 대거 퇴진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여졌다. 결국 일제의 강력한 탄압과 좌파운동의 자체대 모순 등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지속화할 수가 없게 되어 1931년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 후 여성 운동은 일제의 민족탄압으로 인하여 새로운

56) 박용옥(1987), “여성근대화 운동”,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124.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기독교계 여성을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정도였다.

IV. 教科書 人物敍述에 對한 問題點

1. 教育目標와 人物選定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국사교육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지식교육과 이를 통하여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치교육의 양면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역사적 지식을 통하여 객관적인 가치관을 발견하는데 있는 만큼, 애국애족하는 국민을 키우려는 것이다. 또한 국사교육은 가치관의 형성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그러나, 지식교육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역사적 사실의 주입을 역사교육의 전부인양 오인하는 일없이 가치교육에 필요한 역사적 사실을 엄격히 선정하여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인물선정만을 놓고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물의 선정자체가 그러하듯이 서술내용도 지배자 중심의 정치사적 서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주체가 소수의 지배층이라고 생각하게 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역사에 있어서 지도적인 인간의 역할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대한 개인은 개인 이상의 전체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개인이 속하고 있던 집단이나 대중의 역할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층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인간, 일반대중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인물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즉 정치사적 인물은 주로 인물의 업적 중심으로, 문화사적 인물은 작품의 소개나 인명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학생들의 인물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문화사적 인물의 수가 많아 ‘문화사적 역사 이해’라는 교과목표에 접근하는 현상으로 보았으나 그 서술내용을 보면 많은 인물이 나열에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문화, 사상 중심의 서술이라 보기 어렵다. 외국의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의 서술내용을 보면, 救民에 공헌한 인물, 국가의 평화와 사회질서에 이바지한 인물을 많이 취급하고 그 인물의 출생, 성장과정, 인간성, 업적, 시대적 배경, 영향, 의의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의 비교상도 기술되어 있어서 인물의 묘사가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인물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인물의 업적이나 인명의 나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활동상, 인간상, 인간적 고뇌, 환경 등을 시대적 배경과 관련시켜 서술함으로써 역사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각주·표·삽화의 적절한 활용으로 제한된 본문내용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 최소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문제이다. 교과서에 서술된 인물 중 어떤 인물을 가장 싫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⁵⁷⁾ 지역별, 성별, 학교급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완용, 대원군, 원균, 이성계, 의자왕, 연산군, 고종, 이자겸, 민비, 신돈 등의 인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많은 수의 인물이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에 대해 善人과 惡人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극히 도덕적으로 인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57) 송춘영(1976), 전거서, p.80.

인물을 서술할 때는 인물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주관적인 도덕관이나 윤리관, 편견 등에 의해 인물이 평가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인물은 偉人 못지 않게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는 역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인물의 행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인물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나 인적, 물적 모든 조건이 배려되어야 한다. 즉, 어느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 인간의 사상과 행동 논리, 개인과 그가 속했던 집단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평가가 주어져야 하며 인물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속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신화적 인물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고대 국가의 건국 시조와 각 나라들의 왕들의 탄생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교과서에는 단군 왕조로 표현되는 고조선 신화가 서술되어 있는 바, 단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취급하고 있다. 신화와 역사는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역사라는 말뜻을 좁게 해석해서 역사적 사실의 집적이라고만 보지 말고 넓게 생각해서 인간 생활 그 자체의 시간적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신화의 밑바닥에는 역사가 가리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역사교육에서는 그 眞僞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신화의 발생 배경이나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신화적 인물을 통해 그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인의 감각이나 사고 및 습성을 이해하고 고대인의 역사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토 인물에 대한 문제이다. 향토의 인물을 통한 역사학습은 학생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이므로 그 역사상이 구체적이고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향토의 인물이라고 하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 지방의 인물을 조사하여 그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 그의 역할과 공적을 조사하는 것은 흥미있는 역사학습이 될 것이다.⁵⁹⁾

58) 권향숙(1990),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p.34.

그러므로 지역 사회의 자료를 재검토해서 향토 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며, 교과서에도 향토 인물에 대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록하는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敎科書에 收錄된 人物의 取扱 內容

인물취급에 있어서 고등학교 역사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인물이 역사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업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특히 유의하여 그 현저한 부분을 중심으로 취급하여 시대의 흐름 가운데 위치되어 인간상을 그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⁵⁹⁾ 이러한 견지에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린 인물을 살펴본다면, 단순한 인물 소개에 그친 인물 나열식 경향이 지배적이고, 비록 인물의 기본적 사항은 수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급은 비개성적, 비인간적이며, 역사적 조건이나 업적이 병열되어 있음에 불과하다. 즉, 인명은 다수 등장하더라도 인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의 취급내용을 검토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배 계층 중심의 서술체계를 좀 더 대중적으로 서술되어 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있어서 지도적인 인간의 역량이나 역할에 대해서 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개인은 단순히 일개인의 인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개인이 속해 있던 집단이나 이를 지지한 대중의 역할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취급된 인물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인물서술 내용이 인명의 나열 내지는 업적만이 피상적으로 기술되어 구체성을 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인물의 인간상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물학습의 목표가 '나와 先人이 함께 思考하고 共鳴하며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인 만큼 주(註)를 많이 할애해서라도 인물에 대한 생애, 생활, 사상, 활동 등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59) 이원순 외(1975), 전계서, p.294.

60) 김한식(1978), 전계서, p.457.

셋째, 인물선정이나 내용소개와 관련된 도표, 삽화, 사진, 초상화, 주 등을 많이 수록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삽화, 사진, 초상화 등을 취급하면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줄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감명을 부여하여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며, 학습의욕을 높여주어, 주체저기인 활동을 전개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人物 指導上의 有意點

인물학습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첫째, 인간부재와 민중부재의 역사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생활의 역사교육으로 전환되도록 해야한다. 둘째, 역사상의 인물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인물의 업적이나 활동만을 단순히 이해하는 면에 그치지 말고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기반을 관련지어 지도하되 한 인물이 민족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후세에 미친 영향을 역사 발전의 흐름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인물을 보는 눈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인물지도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고 하여 권선징악적인 윤리관, 가치관을 중시하는 이른바 윤리,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편견이나 인물관을 학습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과 사고로 역사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인물의 지도나 학습이 국수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되며, 적어도 세계사적 시야에서 보편타당성이 있게 지도되어야 한다.

V. 要約 및 提言

1. 要約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선정과 서술내용, 지도 방안 등을 서술하여 보았다. 이에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고 인물학습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므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國史 教科書에 나타난 人物分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본문에 선정된 인물의 수는 515명으로 이 총수가 과연 정선된 인물의 수인가를 엄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수록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시대별 인물의 선정에 있어 근대의 인물이 대폭 보강되어 '근대·현대사 내용의 강화'라는 교과목표에 접근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인물이 극히 적은 수준에 있어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대의 인물이 더 많이 선정, 수록되어야한다.

영역별 인물의 수는 지배층 중심의 정치사적 인물의 수가 문화사적 인물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과거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인명수는 총 11명에 불과하여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선된 인물이 좀 더 많이 수록되어야 하겠고, 외국인의 선정도 우리 민족사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좀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선정되어야 하겠다.

한편 교과서의 인물 대부분이 본문에서 취급되고 있는 바, 본문 수록의 인물은 보다 정선될 필요가 있으며 각주·표·삽화 등에서 보다 많은 인물 자료를 게재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인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물의 서술 내용도 일반 대중들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위인 못지 않게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거나 주관적인 도덕관, 윤리관, 편견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각 지방별 향토 인물은 따로 부록으로 수록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학습자료로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록해야 할 것이다.

2. 提言

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은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인물을 통해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인격이나 인생관의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물학습이 역사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이론연구를 통해 인물의 서술과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인물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의식구조와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인물의 선정은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서술되어야 하며, 올바른 인물의 이해를 위해 인물에 대한 史料의 개발과 수집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문학 작품이나 방송극에서 취급하는 인물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작가나 매스컴의 관계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역사적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단행본>

- 강우철(1974), 「역사의 교육」, 교학사.
- 강재언(1992), 「한국 근대사」, 한울.
- 교육부(1996), 「고등학교 국사(상)·(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6), 「고등학교 국사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성수(1977), 「역사학개론」, 삼영사.
- _____ (1980),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 신용하(1987), 「한국 근대 사상사 연구」, 일지사.
- 염인호(1993), 「김원봉 연구」, 창작과 비평사.
- 이원순 외(1975), 「사회과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77), 「역사교육」, 능력개발사.
- 이원순(1981), 「역사교육론」, 삼영사.
- 이원순·이정인(1981), 「역사교육이론과 실제」, 정음문화사.
- E. H. Carr(길현모역)(1970), 「역사란 무엇인가」, 탐구당.
- 차하순(1988), 「역사의 본질과 인식」, 학연사.
- 천관우(1984),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 최재희(1974), 「역사철학」, 청림사.
- 콜링우드(김봉호역)(1976), 「서양사학사」, 탐구당.

<논문>

- 강우철(1978), “역사교육과 역사의식”, 역사교육, 제24집, 역사교육회.
- 강지연(1994), “역사교육에서의 인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대석(1990), “사회과 역사분야의 인물학습 지도방안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향숙(1990),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혜(1977), “고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구조에 관한 일고찰”, 역사교육, 제21집, 역사교육회.
- 김은숙(1993), “중학교 국사과 인물의 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한식(1978), “국민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구사학, 제 15, 16합집.
- 김홍일(1989), “중·고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옥(1992), “현행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근대사 부분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용옥(1987), “여성근대화 운동”,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박정용(1993), “현행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에 관한 실태분석-인물학습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춘영(1976), “고등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방안”, 역사교육, 제19집,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1982), “인물교재의 교육적 기능과 그 지도 방안”, 대구사학, 제 20,21집.
- _____ (1984), “최근 한국의 역사교육이론 연구의 분석적 고찰”, 역사교육 제29집, 역사교육연구회.
- 송춘영·이창옥(1977),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제22집, 역사교육연구회.
- 신동렬(1983), “중학생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의 조사와 그 지도방안”, 역사교육 토론집, 제5집.
- 역사문제연구소(1988), “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의 재평가”, 역사비평 계간 2호.
- 이건형 외(1978), “역사교과서에 실린 인물에 대한 분석적 평가와 그 비교연구”, 대구사학.
- 이균영(1991), “신간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일제 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신원문화사.

- 이상배(1993), “중학교 국사과의 인물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운환(1991), “고등학교 새 국사 교과서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희(1987),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운동”, 「한국사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전표신(1989), “현행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인물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동걸(1984),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 조미경(1989), “중학교 인물학습에 대한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경현(1996),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인물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The Study of Historical Figures in the revised edition of
6th curriculum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Hong, Owan-Jin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In-Hyuk

The essential object of recent history education is to enable students develop problem-solving abilities, historical judgements and to make them interested in history. The study of historical figures in history education is a good way to achieve this goal. So in this thesis, historical figures in a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were classified chronologically. Historical figures who appeared from 1876 to 1944 in a textbook and a teachers' guide book, were categorized, analyzed, and presented in the table.

To establish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tudy of historical figures in history education was investigated, related to the goals of high school history education. The standards choosing historical figures in a textbook were synthesized, based on the former studies. To emphasize the study of different and various historical figures according to the step in development of students' historical knowledge, 127 historical figures appear in Korean early modern histor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rib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extbook's recordings style method. Other important historical figures and their activities in each field were added and recorded. In

conclusion, some problems are present when we intend to use only a textbook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of historical figures in Korean history education. They are as follow:

First, usually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were placed in a row in a textbook. But historical figures's own personaliti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should also be recorded in detail in the textbook.

Second, a present textbook focuses on the ruling class, ignoring the ruled class. With the preconception that the common people were the most important group in history, individuals and their activities among the ruled class should also be recorded in the textbook.

Third, Korean early modern history includ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apanophiles as well as separatists in Korea should be recorded in the textbook so that students themselves can judge them.

Fourth, artists, clergies, and famous women were recorded much less. Various individuals and their activities should be recorded.

Fifth, the records of historical figures should not focus on biographical systems so that students can develop objective understanding and historical knowldege through the study of historical figures in history education. Historical figures should be recorded in harmony with the contents of a textbook so that it can help students to develop their interest in history and their historical judgements.